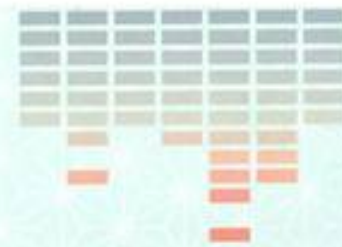


장애여성공감 문화예술사업단



거북이 라디오



2010년 11월 24일 (수) ~ 26일 (금) 오후 7시 30분 / 11월 27일 (토) 오후 4시
2호선 홍대역 부근 카톨릭청년회관 CY홀

주최 장애여성공감 주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장애여성공감 주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441-2384 www.wde.or.kr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백화점 411호



초대의글

장애여성공감 대표 배복주

〈춤추는 허리〉는 올해로 6회째 정기공연 무대를 올립니다. 〈춤추는 허리〉는 장애여성이 경험한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극단입니다. 그동안 장애여성의 성, 가족, 연애,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올렸습니다. 배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춤추는 허리〉의 공연들은 특별한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하고 고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기공연의 주제는 장애여성의 독립입니다. 장애여성의 독립은 단순히 가족과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적인 독립, 사회적 관계 맺기, 주변의 자원과 정보 활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연하는 「거북이라디오」는 장애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위한 일상적인 도전과 시도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숙하게 접하는 라디오의 사연들. 그 사연들에는 청취자들의 일상이 담겨져 있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은 서로에게 지지와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좌절과 고통의 경험은 힘든 기억에 머무르는 대신 서로 나눔으로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라디오」에서 들려주는 8명의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기를 바라며, 서로가 진심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춤추는 허리〉배우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무대를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한 시간만큼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껏 움직이고 멋진 연극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공연을 위해 기획, 연출, 실무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고 평등한 소통을 위해 서로가 노력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길 바라며 즐거운 공연을 함께 만들어나간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안연으로 이 공연을 찾아와주신 모든 관객 분들을 기쁨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공연을 즐겨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출의글

연출 최여림

춤추는허리에서는 장애여성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꾸며 공연으로 만드는 것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작업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출발점에서 주어진 것은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이었습니다.

대본을 만들기 위해 이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과 고민을 모아야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지적이거나 비판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재구성하여야만 하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삶 속에서 '독립성'의 문제와 부딪혔던 순간들을 찾는 것은 단지 어떤 일화를 찾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맥락, 더불어 '독립성'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찾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짚은 '독립적인 삶'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언제 내가 독립적이었는지, 언제 그렇지 못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 안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어 나누고 새기고 돌아봐야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아니,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나 자신의 속모습까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춤추는허리의 배우들은 서로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아픔은 안전하다는 바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와 깊은 귀 기울임.

간혹은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뜨거운 어떤 순간이 격한 감정에 치우쳐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고 보살피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본을 얻었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선도 얻었습니다.

우리 공연은 장애여성을 위한 라디오 방송, 「거북이 라디오」에 여러 장애여성들이 보낸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자기 사연을 썼고 DJ도 직접 멘트를 썼습니다. 대본작가가 이를 기다리고 연출과 함께 장면으로 만들어 표현했습니다.

대본을 외우고 연기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의도된 표현을 위해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말과 움직임과 소리를 계속 반복하여 몸에 익히는 것은 제법 고된 일입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업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기에 우리 배우들은 가까이 그 자난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연출의 욕심이 더해져 우리의 주제를 '춤'으로도 표현하자 마음먹은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향한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 그 내면을 또 다른 방법으로, 몸이라는 언어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들의 즉흥을 바탕으로 안무자가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언제 출어지고 모이고, 또 매 순간 어떤 춤을 추는지, 배우들이 직접 판단하고 서로 조화를 맞추어 하나의 춤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번 공연이 첫 만남이었지만, 긴 연습과정을 함께 한 연출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배우들이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설레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연출의 모자람이 배우들의 장함을 가리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정기공연 그리고 결성 8년만에 준비하는 창단식

기획 이진희

2002년 처음으로 공연을 해보겠다고 모였습니다. 장애여성 '난장' 문화제에서 했던 작은 규모의 퍼포먼스였는데, 네 명의 장애여성이 안테나를 꽂은 모자를 쓰고, 통째당하는 장애여성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느낌을 잊지 못했던 장애여성들은 연극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야기는 참신한 소재가 되었고,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무대에서 외면당했던 우리의 몸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2003년 첫 정기공연. 무대도 없고, 조명도 열악하고, 공연을 올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4개월의 긴 연습 기간 동안 몸이 힘들어지고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 연극이 좋아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기대고, 버티며 첫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더운 여름 시작해 긴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지는 춤추는 허리(이하 춤허리)의 정기공연은 매년 연말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장애여성의 독립, 폭력, 섹슈얼리티 등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장애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진지한 주제들은 배우들의 서로 다른 움직임과 느린 발음을 타고, 하지만 특유의 유쾌한 진정성을 잃지 않고 관객과 만났습니다.

2008년에는 1기 장애여성 연극 전문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료증이었지만, 매해 새로운 장애여성이 끊이지 않고 모였고, 고전희곡 읽기부터 안무 연습, 연기 실습까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올해로 3기를 맞이합니다.

2009년에는 장애인 생활사실의 장애여성들과 함께하는 연극 워크숍이라는 의미 있는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생활사실이든 직업학교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중/장기 공동생활의 경험이 있으며 춤허리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워풀한 독립을 위하여'를 주제로 사전준비부터 8개월간 총 15회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연극 워크숍이었지만 연극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2010년 여섯 번째 준비하는 정기공연. 결성된 지 8년째인데 정기공연 횟수로 2년이 모자랍니다. 2007년에는 공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올릴 수 없었고, 2009년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한 해 공연을 쉬었습니다. 올해 공연은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주제로 한 <거북이 라디오>입니다.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독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이면 보이지 않은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독립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장애여성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문제가 곧 장애여성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독립생활 안에서도 장애여성의 경험은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는 늘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가 되고, 혼자서 살아가도 독립적인 삶은 늘 위협받습니다. 부족한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속에서 장애여성의 독립이 실현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오늘도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삶에 주체가 되어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독립을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당신은 독립적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과 나는 무엇이 달아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단지 물리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고민해 왔던,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적인 갈등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모두에게 말을 걸고자 합니다. 장애인으로 통칭되는 독립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들려주는 우리의 몸짓에 이제 사회는 다른 방식의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느 해의 춤허리 공연이 그러했던 것처럼 배우들의 경험을 토대로 엮어졌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내어 놓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무대에서의 열정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8년 만에 춤허리의 창단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체처럼 극단 <춤추는 허리>도 독립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로 출발한 춤허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에 대한 고민을 거쳐 이제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극단으로서 더 많은 장애여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창단을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까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무대 위에 당당히 섰던 용감한 장애여성 배우들, 또 자신의 창작열정으로 춤허리에 불을 지피주었던 연출가, 작가 등 많은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감의 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분들, 그리고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되고, 춤추는 허리가 독립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는 것, 더딘 것이 우리의 효율이라는 춤허리의 문화는 또 어떤 변화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질수록 춤허리의 고유한 정신이 훼손될까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두려운 걱정보단 실례는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2003년 결성 당시 용기를 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시골벽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회 정기공연을 기점으로 선택한 새로운 길에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8년간 다양한 삶의 결들과 욕망과 주장이 뒤엉켜, 느리지만 빠르게 달려온 춤허리는 늘 그렇듯 새로운 장애여성 문화운동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효진 / 정리 진희

10/22



정기 공연을 앞두고 춤huri 배우들이 다시 모였다. 처음 연습은 늘 그렇듯이 조금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연습에 몰두해 보니 언제나 그랬듯이 대체로 적응이 빨리 되어가는 것 같다. 두 명씩 짝지어 서로는 만져주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느낌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간에는 무엇을 느꼈고 뭐가 불편했는지 알았다.

10/28



오늘 얘기 했던 건 활동보조 얘기다. 종종 장애인들한테 묵숨과도 같은 활동보조 서비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불평등 하구나 느꼈다. 지부담 문제, 시간문제, 서비스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까지 복잡한 이야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오고 가며 공감 할 수 부분도 있었고 공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다. 활동보조 시간이 무제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는 배우들도 좀 있었다. 활동보조는 끝없는 얘기 같았다. 내일도 활동 관련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향내자 춤huri.....



연습이 더해 가는데 지쳐가는 기색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준비운동은 필히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활보 얘기를 이어가고 즉흥도 한다. 활보 문제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하는 거라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한다. 언제쯤 장애인들의 마음을 알까?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에서 나와 함께한 승희씨의 외출이 좋고, 간식으로 피자도 먹었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두 번째로 받았다. 두 번째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응도 빠르고 호흡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배웠다. 참으로 신기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것, 저것 배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배우들은 확신을 가졌다. 중간 평가를 하자면 좌절도 있었고, 한희도 있었다.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는 누가 도와 달라고 하면 내밀어 주는 그런 배우들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몸조심! 감기 조심!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내일 복시다.



먼저 온 몸을 이용해 숨쉬기 운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워졌다. 햇바닥을 이용해 소리 내는 거랑 대각선으로 서기랑 동그란 거 만들기를 했다. 날이 갈수록 배우들 원더풀~ 그리고 10년 후 내가 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눈물바다가 된 상황도 있었다. 우리 장애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CAST

서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하리의 배우로 활동 중인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배우로 활동한지도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7년이란 시간동안 저희 춤추는 하리도 성장을 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한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정기공연은 제게는 조금 더 특별한 무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이 그것도 저 같은 중증장애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직 우리의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기가 생겨서 병원을 찾았을 때 간호사들의 반응, 사람들의 알 수 없는 편견과 오해들..... 너도나도 열악하고 부족한 사회적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한 아이를 잘 낳아서 "나", "우리 장애인 부모"의 방식으로 너무나 잘 키우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연습 과정과 과정에 더욱 더 진심하게 다가가게 되고 재미있게 배우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연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무대를 통해서 배우로 활동하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부디 저희에 공연을 보실 때 저희의 몸에 감동받으시지 마시고 저희의 연기력에 무언인가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즐겁고 때론 까칠하게 하지만 유쾌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정

며칠 전 꿈을 꾸었다.
 내가 무대 위에 오르면 우리의 공연이 시작 되기로 약속 돼 있었고, 나는 무대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머리 속에 저장해 두었던 대사가 모두 날아가 버린 것이다. 관객과 다른 배우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위에서는 연출의 다급한 목소리....., "언네 뭐해요!"

완전 카오스(khaos) 상태가 돼버린 내 머릿속!
 우리의 연극은 늘 그렇게 까마득한 상태에서 준비되고 완성되어 무대에 올려졌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며 살아 숨쉬던 얘기.
 그 얘기를 우리는 또 무대에 올린다.
 세상의 속도보다 느리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외친다.



양지향

2년 만의 공연.
 다른 때보다 제일 늦은 날짜에 하는 정기공연...
 올해도 항내자.
 아라아라~~



이정민

나는 장애여성들의 독립과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위 팔색조가 되고 싶다.
 지금은 원석이지만 윤이 나는 수정이 되고 싶다.



CAST

김호진

안녕하세요. 저는 호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춤추는 허리 공연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춤추는 허리는 그동안 정기공연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이번엔 정식 극단으로 출범하며, 처음 큰 무대를 펼칠까합니다.
바다... 더 넓고 깊은 그런 마음으로 관객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공연이 보람차고 뜻 깊어 질 수 있도록 멀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 보시러 보세요. 꼭 받으실 거예요.



이경보

저는 연극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무대에 설 기회가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리고 창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연을 하고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남습니다.
좀 더 자신있게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는데 저로 인해 부족한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선배들에게 혼이 날까봐 제가 너무 걱정 되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연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혜미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혜미라고 합니다.
제가 춤추는 허리에 들어 온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 선배의 초대 공연에 따라가서 공연을 보게 되어서요. 아주 멋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연극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춤추는 허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 공연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고민됩니다.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공연하는 도중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면 울 수록
긴장감과 짜릿함을 두 가지를 맛본다면
저는 이게 바로 연극배우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허리에 들어 와서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장애인 인권 운동을 연극으로 만들어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고 싶습니다.



오승희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허리 오승희 라고 합니다.
저는 정기 공연이 이번이 처음 인데요.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고민 됩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실수 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 됩니다.
춤하러에 들어 온지 몇 개월도 안 된 제겐
무대 위에 올라 간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거든요.
이번 공연에선 저의 어떤 모습이 비추어 질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나. 하지만 활발하려고 노력하는 나.
어떤 모습이든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하여
관객 여러분에게 웃음 감동을 전해주고 싶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STAFF



제작 장애여성공감

기획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연출 최여림 | 달과아이극단

〈나는 거위〉, 〈엄청난 거짓말쟁이 척척생가〉, 〈어느날 예술하기〉 등 연출

작가 김은선 | 창작집단 얼얼한소풍

뮤지컬 〈자명고〉 (2009. 공동 작), 〈도화원청춘기〉 (2008. 작), 가정무협활극 〈花影〉 (2008. 드라마티그), 발칙예로마당극 〈도화골 음란소녀 창이〉 (2008. 드라마티그)

조연출 포비

공동육아에서 아이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거나,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무대감독 황혜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감독 (2010), 인형극 〈나의 열살〉 연출 (2010)

조명디자인 이경은

연극 〈서른엄마〉 조명디자인 (2010), 연극 〈나는 거위〉 무대 디자인 (2010), 연극 〈엄마를 부탁해〉 조명오퍼레이터 (2010)

무대/소품디자인 김다정

전시 〈놓아준 여름휴가 페스티벌〉 부스디자인 (2010), 단편영화 〈원래대로 고쳐주시오〉 프로덕션 디자인 (2009), 연극 〈늦어도 11월에는〉 무대디자인 (2009)

음악감독 심은용 | 달과아이극단

현, 달과아이극단 음악 감독, 잠비나이 멤버

안무 김바리

소리지도 이윤희

스틸 혜영

영상 원해수

조명오퍼레이터 김남중

음향 음향자유

그래픽디자인 주우미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경민선, 강은주, 최혜영, 문정연

진행 김명숙, 상추, 김희진, 현진, 김영애, 이희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

도움주신 분들 카톨릭청년회관 유환민 신부님, 카톨릭청년회관 이동영 팀장님, 명문하우징 김내경 사장님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를 소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는

2003년 장애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연극을 통해 드러내고자 창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여성의 생애사, 독립, 섹슈얼리티 등을 주제로 한 정기공연,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다수의 초청공연을 펼쳐왔으며, 최근엔 장애인생활시설 연극워크숍, 장애여성 연극아카데미를 진행하여 활동과 고민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춤추는 허리 어제, 장애여성 존재 알리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춤추는 허리 오늘, 장애여성의 권리와 예술을 통한 인권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허리 내일, 장애여성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서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특수성이 오히려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연극을 통한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설프을지라도 이제는 그 어설편이 당당함이 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내일은 더욱 빛을 발하고 진정한 장애여성의 예술성과 인권을 말 할 있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장애여성의 인권운동과 예술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더 멋진 축제의 세계로!.....

춤추는 허리가 걸어온 길

2002 장애여성공감 난장 <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2003 1회 정기공연 <갑자기>

2004 서울여성영화제 폐막식 초청공연 <안녕, 발들>
2회 정기공연 <여기에 있긴 있는데 여기 있는게 안보여?>

2005 3회 정기공연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춤을 추고 싶니?>
세계여성학대회 전야제 초청공연 <그녀가 온다>

2006 4회 정기공연 <나 여행 간다>
청주 성폭력상담소 초청공연 <여기에 거기에>

2007 초청공연_시흥자립생활센터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1회 거리공연 <소풍>
초청공연_시청앞 밤마실 <새벽 2시, 장애여성 들>
초청공연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 문화제 <아무도 없다>

2008 2회 거리공연 <우리들만의 명절>
1기 장애여성 연극아카데미
10회 안티페스티벌 <그녀가 온다>
5회 정기공연 장애여성 연극페스티벌 <장애여성, 그 예술혼을 펼쳐라>

2009 2기 장애여성 연극아카데미
2기 장애여성 연극 아카데미 작품 발표회

2010 3기 장애여성 연극아카데미
6회 정기공연 <거북이 라디오>





정기공연과 함께하는 춤추는 허리 창단식 그리고, 후원기금 마련!!

8년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극단의 길에 들어서는 춤추는 허리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후원하는 방법

1. 정기후원 매월 5천원 이상 CMS후원 가입시 공연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2. 평생후원 일시로 100만원 이상 후원시 공연 초대권
+ 장애여성공감 발행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3. 재능/물품후원 공연과 관련한 전문인력/자원활동,
각종 물품과 음식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1-616790 (예금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소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과는 또 다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여성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이 바로 장애여성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에서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 노동할 권리, 이동할 권리, 문화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적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이 통제되거나 강요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998년 창립한 단체입니다.

공감의 주요 활동

장애여성 인권시간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장애여성 성폭력상담 및 피해자 지원과 성문화 운동 전개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장애여성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장애여성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단체간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장애여성 인권시간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장애여성 인권시간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장애여성 성폭력상담 및 피해자 지원과 성문화 운동 전개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장애여성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장애여성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단체간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기획사업

장애여성학교
: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적인 교육공간

부설기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 위기개입 및 상담, 심리·의료·법률지원 및 연계, 지원체계망 조성
· 장애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피해 실태조사, 성인식 연구
·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치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전문상담프로그램, 피해여성 자조모임 등
· 장애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 전문상담원 교육, 성교육 등
· 폭력 근절과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 법률 제·개정 운동, 정책제안 등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망 조성
· 성문화 운동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솔]

· 장애여성독립생활 지원사업 :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정보제공, 주택개조 서비스, 자조모임 지원 등
· 장애여성의 독립생활 조사, 연구사업 : 장애여성 독립생활 이념보급, 실태조사 등
· 장애여성 독립생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독립생활 활동가 양성, 독립생활체험프로그램, 장애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 연극을 통한 장애여성문화운동
· 장애여성의 문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활동
· 연극 아카데미, 연극 워크숍 진행
· 거리공연 및 초청공연 (수시), 정기공연 (연 1회)